

대구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

배 숙 회*

본 연구는 최근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을 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대구의 보육 시설의 분포를 보고 동별 요보육아동수, 요보육아동비율을 현재의 시설수와 대비시켜서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육아동현황을 설립주체별로도 구분해 보고 보육아동의 비율과 보육아동의 수와 가입여자인구수 및 가입여자인구비율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Arc/Info(GIS software)를 이용해 지도화했다. 그 결과 요보육아동의 비율도 높으면서 가입여자인구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23개 동이 선정되고 그 중 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9개동이 마지막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대구의 보육시설의 문제는 절대수의 부족, 불균등 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의 절대부족, 정부 시설의 부족과 높은 보육비의 부담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主要語 : 복지시설, 보육시설, 보육아동, 가입여자인구, 적지

1. 서 언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보면 63년 34.4%, 73년 36.9%, 83년 38.5%, 93년 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15~19세 17.7%, 20~24세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5~29세 44.5%, 30~34세에는 47.4%로 줄어들고 35~39세 연령층에 와서 59.3%, 40~44세 연령층에서 62.8%로 다시 늘어난다.¹⁾ 이는 탁아시설의 미비로 결혼과 출산 후 직업을 잃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²⁾ 결국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은 육아문제이다. 아동보호 및 보육문제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니세프의 최근 보고서는 선진국들도 18세기형 아동학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혼가정이 두쌍에 하나 꼴이고 전체어린이의 30%가 결손가정으로 연간 3백만명의 어린이가 버려지며, 다섯에 하나꼴로 굶주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유아학대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이합(離合)에 구속을 받지않는 유니언리블(자유결합)과 콩큐비나주(계약동거)가 이미 10년 전에 1백만쌍이 넘어서고 있다. 이 급증하는 불안하고 격렬한 결합에서 부산물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학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후진국형인 빈곤이나 무지로부터 어린이들을 구제해 놓기 바쁘게 선진국형의 유아학대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의 아동문제는 선진국형 및 후진국형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안고 있음과 아울러 정상적인 많은 일반가정이 자녀를 과보호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녀양육의 문제,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육아와 탁아문제, 가정파탄에 의한 자녀양육문제, 미혼모에 의한 입양아 문제, 장애아문제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의 육아와 탁아문제가 그 규모나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현저하다. 왜냐하면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유아기에 형성되고 그들이 최초로 접한 사회에서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익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래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탁아기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25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임시수용, 보호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변화를 해왔다. 과거의 경우처럼 전쟁고아와 불우아동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등의 가정결손 및 해체에 따른 아동의 문제와 특히 최근에는 미혼모에 의한 출생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최근의 아동복지는 지난 날과는 달리 제도와 서비스 방법이 보다 더 전문화, 특수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 있는 공·사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천에 옮겨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가정보호에 결합이 있는 시설수용대상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일반가정과 편부모 가정을 모두 도와주기 위한 탁아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구시의 탁아시설 현황을 고찰하고 GIS 기법으로 새로운 탁아시설의 적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모두 12종으로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탁아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이 있다. 각 시설의 기능과 업무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상담소는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입양, 위탁보호 및 거택보호, 아동 또는 임산부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복지시설 또는 요보호아동의 조사·지도 및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자원의 활용알선, 아동의 일시보호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한다.

영아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한다.

육아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 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정 및 희망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아동직업보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킨다.

조산시설은 요보호 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한다.

아동전용시설은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시설, 아동휴양숙박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킨다.

교호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한다.

아동입양위탁시설은 요보호 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거나 직장을 알선한다.

정서장애아시설은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

등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한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한다.

탁아(보육)시설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한다.

이들 시설을 이용형태에 의해 구분하면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시설은 대부분이 이용시설이며 수용시설은 영아원, 육아원, 장애아시설이 있다.³⁾

3. 대구의 보육시설현황

1994년말 현재 대구시에는 총 387개소의 탁아시설이 있다. 그 중 정부지원시설은 77개소(19.9%), 자치단체지원시설이 2개소(0.5%)이며 나머지가 308개소(79.6%)이다. 이를 설립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24개소(6.2%), 민간보육시설이 216개소(55.8%)로 가장 많고 직장보육시설 2개소(0.5%), 가정보육시설도 145개소(37.5%)나 된다. 그러므로 탁아시설은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한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이며 법인이 설립한 시설도 61개소로 15.8%나 되며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은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이들 시설중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중 법인시설에만 국한되어 있고(77개소, 19.9%) 자치단체

에서의 지원도 국·공립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있다. 자치단체지원을 받는 2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표 1).

다음으로 보육아동현황을 보면 총 12,008명이 탁아시설에서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중 1,456명(12.12%)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9,090명(75.7%)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위탁보육되며 직장보육시설에서 23명이, 가정보육시설에서 1,439명(12.0%)이 보육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세 미만의 영아가 634명, 5.3%이며 2세의 영아는 1,865명, 15.5%로 2세이하의 영아는 모두 20.8%이며 나머지 9,509명(79.2%)은 유아(幼兒)들로서 전체 탁아시설이용자의 대부분은 2세이상의 유아들이다. 그러므로 2세미만의 영아를 둔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탁아의 문제가 심각하며 과거 친인척에 의존하던 형태로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표 2).

4. 보육시설의 적지 분석

대구시의 광역화 이후 보육시설을 보면 총 473개소로 1994년말의 387개소에 비해 86개소(22%)나 증가했다. 그러나 달성군의 19개소를 제외하면 67개소, 17.3%가 증가한 셈이다. 이를 각 區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동구가 전체의 19.03%인 90개소로 가장 많고 북구, 달서구, 수성구의 순으로 많으며 중구, 달성군, 남구, 서구순으로 보육시설이 적게 분포하고 있다. 이를 동별로

표 1. 대구의 보육시설현황

구 분	설 립 주 체					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개인	단체	법인			
정부지원	19			58		77	
자치단체지원	2					2	
기타	3	154	1	3	2	145	
계	24	154	1	61	2	387	

자료 : 대구시 사회과(1994. 12)

GIS기법을 활용한 대구 보육시설 적지에 관한 연구

표 2. 대구의 보육아동 현황

구 분	설 립 주 체						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개인	단체	법인			
2세미만 영아	62	255		230		87	634
2세 영아	227	573	4	820		241	1,865
유아	1,167	2,673	38	4,487	23	1,111	8,508
계	1,456	3,501	42	5,547	23	1,438	12,008

자료 : 대구시 사회과(1994, 12).

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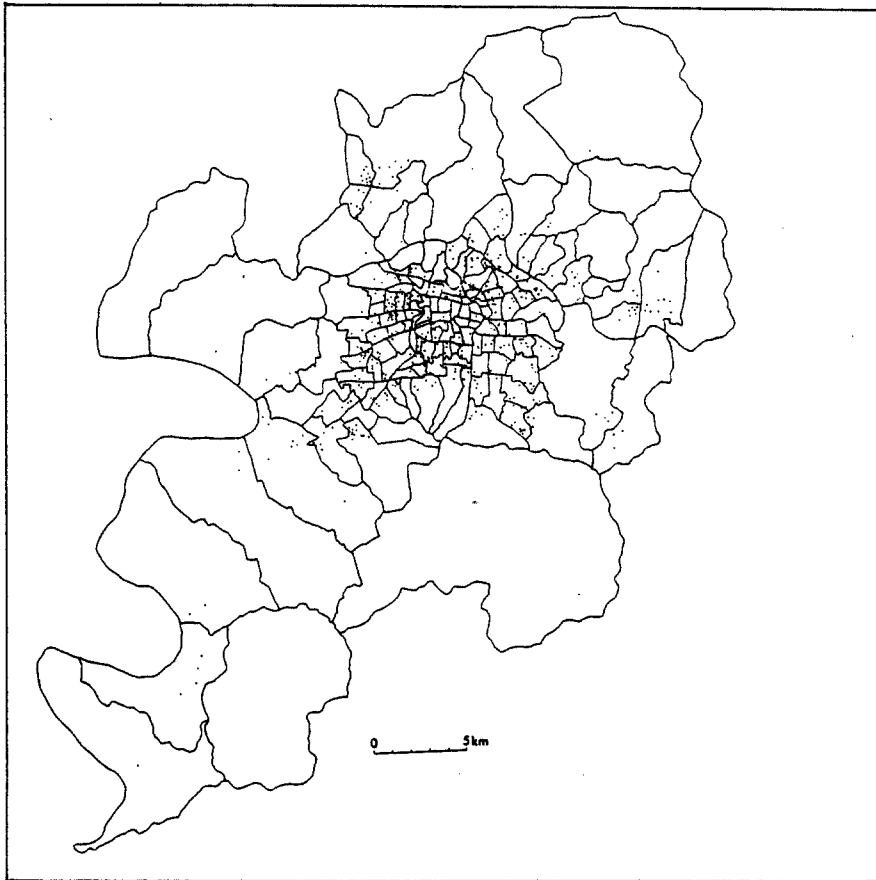


그림 1. 대구광역시의 보육시설 분포(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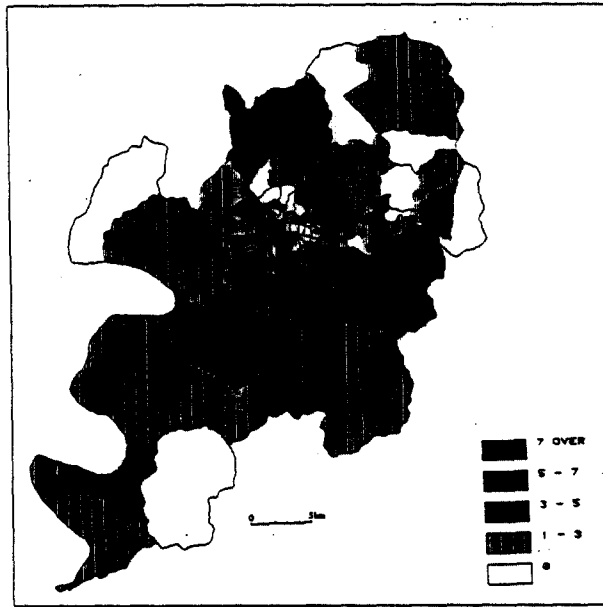


그림 2. 동별 보육시설수(1995)

표 3. 대구광역시의 구별 보육시설현황

구별 주체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소계
공립	1	3	5	2	3	2	4	3	23
법인	5	10	4	9	12	14	12	3	69
개인	8	51	34	27	7	29	38	7	201
직장	1		1		1				3
놀이방	2	26	20	11	59	29	24	6	177
계	17	90	64	49	82	74	78	19	473
	3.59	19.03	13.53	10.36	17.34	15.64	16.60	4.02	100%

자료 : 대구시 각 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1995. 7.7.

보육시설이 7개소 이상 분포 지역은 동구의 효목1동, 방촌, 안심1, 안심4동과 서구의 평리1, 3, 4, 중리동, 북구의 칠곡1, 3동, 수성구의 지산1,2동, 달서구의 성서 4, 월배 2동이며 달성군에서는 화원읍이 8개소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칠곡1동, 월배2동은 20개소, 지산1동은 10개소로 최근 대단지 아파트의 입지와 관계가 크다. 반면에 탁아시설이 전혀없는 곳은 중구의 대부분 동과 동구의 신천2, 평광, 둔산부동, 신평동, 안심3동과

서구의 원대1, 2, 3가동, 북구의 칠성1가, 침산1,2,3동, 노원 3가2동, 노곡동, 수성구의 만촌2동, 달서구의 두류 1동과 달성군의 하빈, 유가면이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 및 도심과 가까운 점이 지이거나 주변부의 농촌지역들이다. 시설이 전혀 없는 동도 29개동(18.6%)이나 되며 90%이상의 동이 7개 미만의 시설을 갖고 있으며 7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동은 10% 미만이며 이것마저도 규모가 매우 작아서 시설아동수는 극히 적다(표 4).

GIS기법을 활용한 대구 보육시설 적지에 관한 연구

표 4. 보육 시설수와 동 수의 분포

시 설 수	동 수	비 율(%)
20	2	1.3
10	1	0.6
9	4	2.6
8	3	1.9
7	5	3.2
6	5	3.2
5	10	6.4
4	20	12.8
3	23	14.7
2	25	16.0
1	29	18.6
0	29	18.6

자료 : 대구시 각 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1995.7.7

이들 시설 중 민간보육시설(개인설립 어린이집)이 201개소 42.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37.42%, 177개소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80%로 법인 및 공립과 직장보육시설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보육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설립주체별 시설의 분포상의 특징을 보면 공립시설은 숫자는 적으나 각 구별로 고르게 분포하나 저소득 집단지역이 많은 서구와 새로운 주거지역이 넓은 달서구에 비교적 많이 분포한다. 법인시설은 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이 많은 북구, 신흥주거지역인 수성구, 달서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구, 서구, 달성군에는 그 수가 매우 적다. 개인 시설은 역시 지역차가 크며 동구, 서구, 달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중구, 북구, 달성군에는 극히 적게 분포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중구, 서구, 북구에 각각 1개소씩 있을 뿐이며 놀이방은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중구, 남구, 달성군에 적게 분포하고 있다.

보육시설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6세 이하의 아동수와 아동의 비율을 보면 <그림 3><그림 4>와 같다. 6세 이하의 아동은 총 254,568명으로 총인구의 10.27%를 접하며 구별로는 달서구가 54,20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북구 40,130

명, 수성구 39,725명, 동구 38,337명, 서구 37,842명, 남구 20,720명, 달성군 14,994명, 중구 8,613명 순이며 중구는 도심인구의 공동화 현상을, 달성군은 농촌지역의 인구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육시설이 동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순으로 많은 것과 비교할 때 서구가 유아의 수에 비해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6세이하 아동수의 동별 분포를 보면 칠곡 1, 성서 2,3,4, 화원, 안심 1, 월배 2,3,4, 칠곡 3, 송현 1,2, 방촌, 논공, 범물, 평리 3, 비산 7, 평리 4, 고산 1, 지산 1,2, 복현 2동이 3000명 이상으로 아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평광, 삼덕 1·2가, 동인 1·2가, 둔산부동, 동성, 칠성1가, 북성, 서성, 달성, 신평, 노원3가2, 동인 4가, 삼덕3가, 대신 2, 남성, 유가면, 공산 1, 노곡, 대신 1, 구지면, 조야, 동인 3가동이 500명 이하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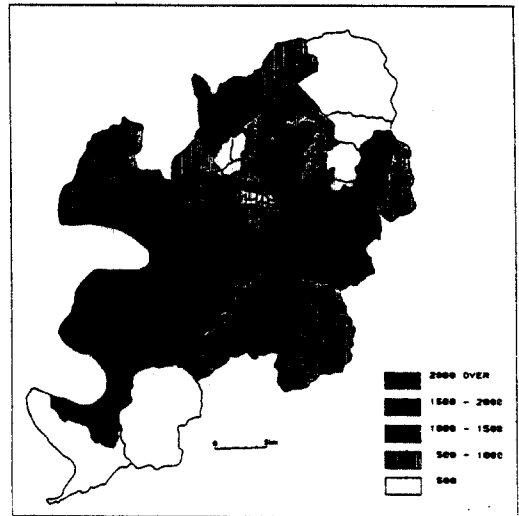


그림 3. 동별 6세 이하 아동수(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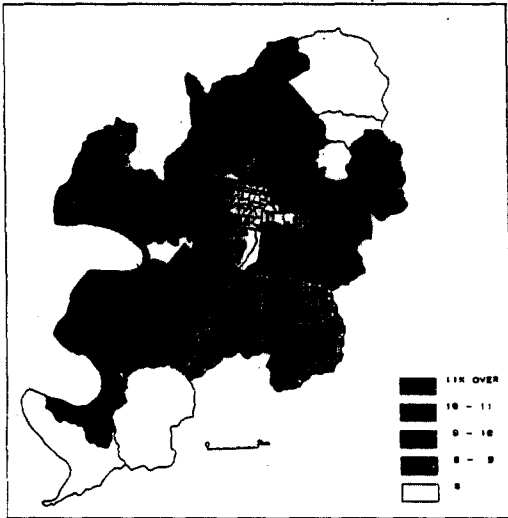


그림 4. 동별 6세이하 이동비율(1995)

6세이하 아동의 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은 논공면으로 18.64%나 된다. 이는 논공면이 공단지역과 거주지역이 상존하여 아동비율이 가장 높다.

화원읍, 칠곡 1, 3, 성서 2, 3, 4, 조야, 안심 1, 본, 다사면, 평리 3, 5, 6, 월배 2, 송현 1, 공산 2, 성서 1, 도동, 현풍면, 노곡, 불로봉무, 비산 7, 검단, 지저, 월배 4, 방촌, 산격 2, 상리, 고산 1동등이 12% 이상으로 주변 농촌지역과 서구의 주거지역이다.

그 다음으로는 안심 2, 비산 1, 5, 산격 4, 평리 1, 2, 월배 1, 3, 칠곡 2동도 11%이상 지역으로 주로 주변부 주거지역이다. 아동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동인 1·2가, 4가, 범어 4, 월배 5, 대봉 1,2, 삼덕 1·2가, 동성, 구지면, 서성, 남산 2, 이천 1, 봉산, 남성, 칠성 1가, 대신 1동 등 중구의 대부분 동과 남구의 동, 광역시의 가장 외곽지역이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다. 아동의 수도 많으면서 아동비율도 높은 곳으로는 논공, 화원, 칠곡 1, 3, 성서 2, 3, 4, 안심 1, 월배 2, 3, 4, 송현 1, 비산 7, 방촌, 평리 3, 고산 1동이다. 이들 중 시설수가 7개 이상 지역은 방촌, 안심 1, 평리 3, 칠곡 1, 3, 성서 4, 월배 2, 화원읍이며 그외의 논공, 성서 2, 3동, 월배 3, 4동, 송현 1, 비산 7, 고산 1동은 아동의 수나 비율에 비해 시설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다음으로 보육아동 현황을 각 구별로 보면 <표 5>와 같다. 대구광역시의 총 보육 아동은 16,008

표 5. 대구 광역시의 구별 보육아동현황

구별 주체별	구별									소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공립	38	227	350	123	238	158	282	142	1558	9.73
법인	549	845	318	859	942	1448	1393	349	6703	41.87
개인	215	1360	824	821	276	897	1110	211	5714	35.69
직장	22		20		12				54	0.34
놀이방	13	231	211	148	671	324	300	81	1979	12.36
계	837	2663	1723	1951	2139	2827	3085	783	16008	
	5.23	16.64	10.76	12.19	13.36	17.66	19.27	4.89		100%
6세이하 인구	8613	38337	37842	20720	40130	39725	54207	14994	254568	
	7.07	10.65	10.65	8.75	11.21	9.01	11.53	13.32		100%
보육아	9.72	6.95	4.55	9.42	5.33	7.12	5.69	5.22		6.29

자료 : 대구시 각 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1995.7.7.

GIS기법을 활용한 대구 보육시설 적지에 관한 연구

명으로 1994년 말에 비해 4,000명이 증가하여 3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달서구가 전체보육아동의 19.27%인 3,085명으로 가장 많으며 수성구가 17.66% 2,827명, 동구가 16.64% 2,663명, 북구가 13.36% 2,139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반면에 달성군은 전체의 4.89%인 783명으로 가장 적으며 중구도 5.23%인 837명으로 매우 적다. 그리고 서구, 북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국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의 수는 거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보육아동의 동별 분포 현황을 보면 <그림 5>와 같다. 월배 2, 안심 4, 칠곡 1, 화원읍, 월배 1, 지산1, 2, 산격 2, 대명 4, 송현 1, 성서 4, 범어 1, 남산 3, 범어 2, 파, 본리, 검단, 신천 3, 중리, 현풍면, 대명 9, 안심 1동이 2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동인 1·2가, 3가, 삼덕 1·2가, 3가, 봉산, 동성, 서성, 북성, 대신 2, 남산 1, 신천 2, 평광, 둔산부, 신평, 안심 3, 원대 1·2가,

3가, 칠성 1가, 침산 1, 2, 3, 노원 3가 2, 노곡, 만촌 2, 두류 1, 월배 4, 6, 하빈면, 유가면에는 탁아시설이 전혀 없다.

보육아동현황을 6세이하의 인구비율과 비교해 보면 중구의 경우 전체 6세이하의 아동 8,613명 중 9.72%인 837명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어 구별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는 남구가 전체 20,720명의 아동 중 9.42%인 1,95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성구가 7.12% 2,827명, 동구가 6.95% 2,663명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서구는 비율이 가장 낮아서 전체 6세이하인구 37,842명 중 4.55%인 1,723명만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누리며 달성군도 전체 14,994명 중 5.22%인 783명이, 북구도 전체 40,130명 중 5.33%인 2,139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달서구도 전체아동의 수에 비해 보육시설이용아동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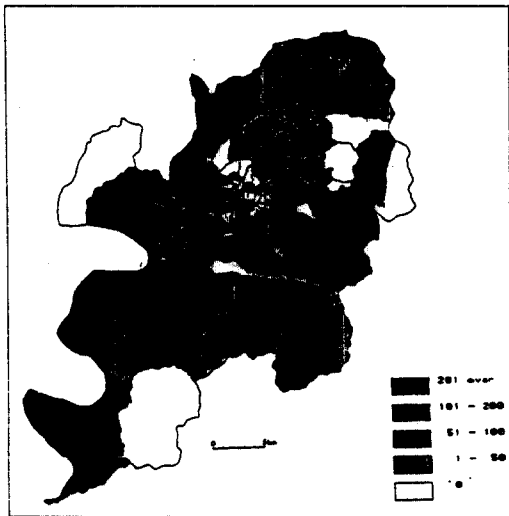


그림 5. 동별 보육아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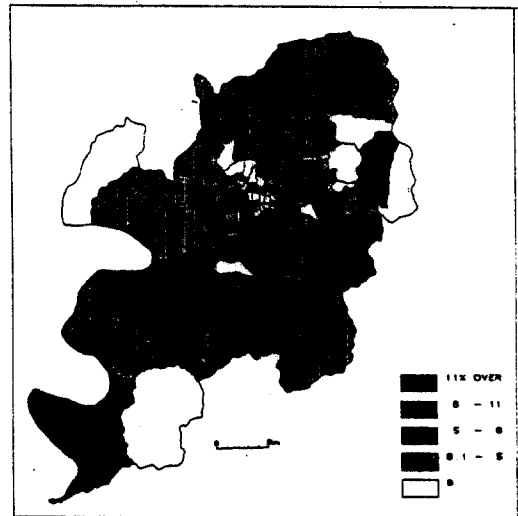


그림 6. 동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1995)

보육시설 아동의 비율을 보면 평균 6.29%로 동별로는 달성, 남산2, 칠성2가 2, 남산3, 대명3, 8, 안심4, 대현4, 상리, 월배1, 2, 범어1, 2, 3, 산격2, 내당3, 조야, 신천3, 노원1·2가, 복현1, 남성, 파, 수성4가동이 13%이상으로 가장 높은 동들이다.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보면 6세이하의 아동비율도 높으면서 보육시설 이용율도 높은 곳은 남산3, 안심4, 월배1, 2, 범어1, 2, 산격2, 신천3, 대명4, 9동, 지산1동이다.

다음으로 탁아시설과 가입여성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20~39세 여자인구수를 보면 〈그림 7〉과 같다.

총 484,444명으로 39.31%를 점하며 구별로는 달서구가 95,386명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가 83,944명이며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동구, 북구, 서구가 많으며 남구와 중구, 달성군지역이 절대수는 적다. 동별 분포를 보면 칠곡1, 월배2, 4, 5, 범물, 안심1, 월배3, 성서3, 송현1, 2, 칠곡3, 화원, 평리1, 3, 4, 방촌, 지산

1, 2, 성서2, 비산7, 복현2, 중리, 내당4, 성당2, 고산1동이 특히 5000명이상지역으로 대부분이 신주거지역들이다. 반면에 평광, 봉산, 둔산부, 삼덕1·2가, 동인1·2가, 신평, 조야, 칠성1가, 북성, 노곡, 노원3가 2, 동성, 달성, 유가면, 서성, 공산1, 하빈면, 삼덕3가, 구지면, 대신2, 동인4가, 상리, 남성, 안심3동이 1000명이하지지역이며 도심과 광역시에 새로 편입된 지역과 동구의 주변부 농촌지역에 해당된다.

20~39세 여성인구비율을 동별로 보면 〈그림 8〉과 같다. 대구시의 39.31%를 차지하며 구별로는 중구, 수성구, 달성군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달서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동별비율분포를 보면 논공면, 화원읍, 칠곡1, 비산7, 평리5, 6, 성서2, 3, 송현1, 검단, 성서4동이 43%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범어4, 대봉1, 동인4가, 동인1·2가, 월배5, 북성, 칠성1가, 둔산부동, 가창면, 하빈면, 공산1, 유가면, 구지면, 평광동이 35%이하로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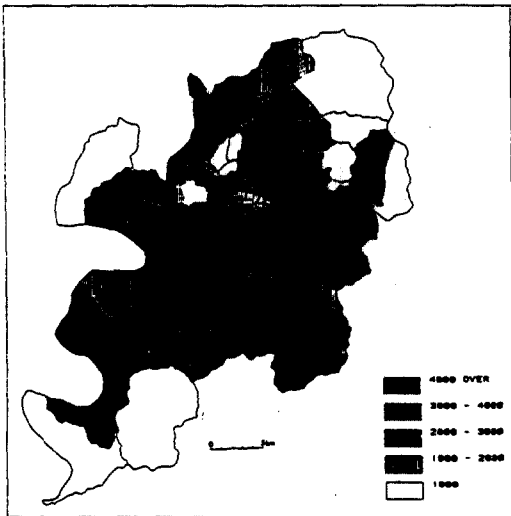


그림 7. 동별 20~39세 여자 인구수(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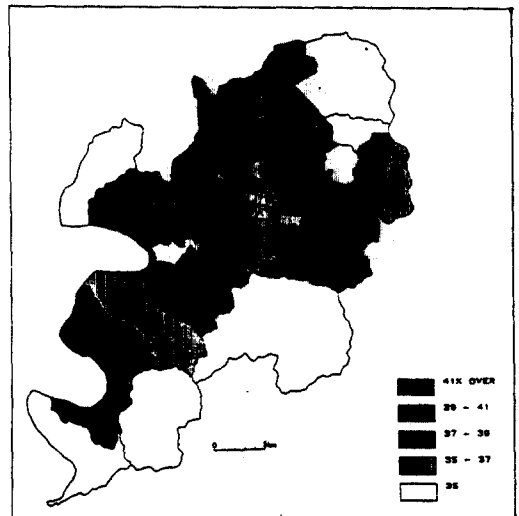


그림 8. 동별 20~39세 여자 인구비율

GIS기법을 활용한 대구 보육시설 적지에 관한 연구

여자수도 많으면서 여자인구비율도 높은 동으로는 칠곡1, 3, 월배2, 5, 안심1, 성서 2, 3, 송현 1, 화원읍, 평리3, 4, 방촌, 비산7, 복현2동으로 대부분이 주변부 신주거지역과 광역시의 화원읍이다. 이들중 시설수가 7개이상 지역은 칠곡1, 3, 월배2, 안심1, 화원읍, 평리3, 방촌동이며 그외의 월배5, 성서2, 3, 송현1, 평리4, 비산7, 복현2동은 여자의 수나 비율에 비해 시설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다음의 <그림 9>는 <그림 4>의 6세이하 아동비율 11% 이상의 지역과 <그림 8>의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41%이상인 지역을 결합한 것으로 평리2, 3, 5, 6동, 안심 1, 화원읍, 성서1, 2, 3, 4, 방촌, 검단, 송현1, 월배1, 산격2, 본, 비산1, 7, 도동, 칠곡 3, 불로봉무, 지저, 논공면의 23개 동이다.

이들 지역은 우선적으로 탁아시설이 설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6세이하 아동의 비율도 매우 높고 20~39세 여성의 비율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림 9>의 지역이 탁아시설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과 탁아시설수를 비교해보면 6세 이하의 비율이 11%이상이고 20~39세 여자인구 비율이 41%이상인 지역이면서 탁아시설이 전혀 없는 동은 없고 1개 지역이 비산 1동, 성서 1, 평리2, 5의 4개동이 있고, 2개 지역이 논공, 지저, 불로봉무, 성서 3, 도동의 5개동으로 총 9개동이 탁아시설이 2개 이하 지역이다.

이들 지역중 아동의 수와 여자의 수도 많은 지역을 보면 평리 3, 안심 1, 화원읍, 성서3, 4, 방촌, 칠곡 3, 송현 1, 성서 2, 본, 비산1, 7, 논공면이며 이들 동중 탁아시설이 7개소 이상지역은 평리 3, 안심 1, 화원읍, 성서 4, 방촌, 칠곡 3동 뿐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송현 1, 성서 2, 본,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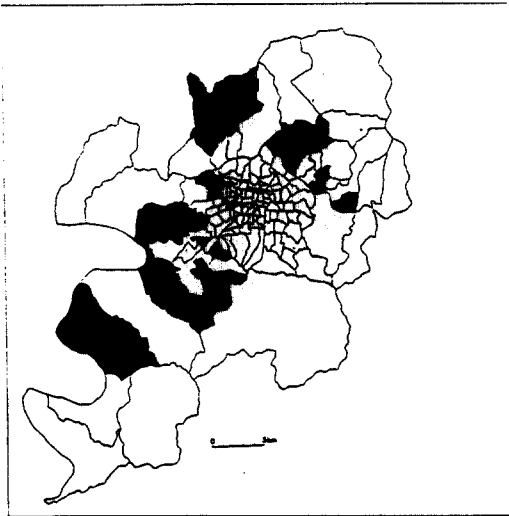


그림 9. (그림6)과 (그림8)의 결합 아동비율과 가입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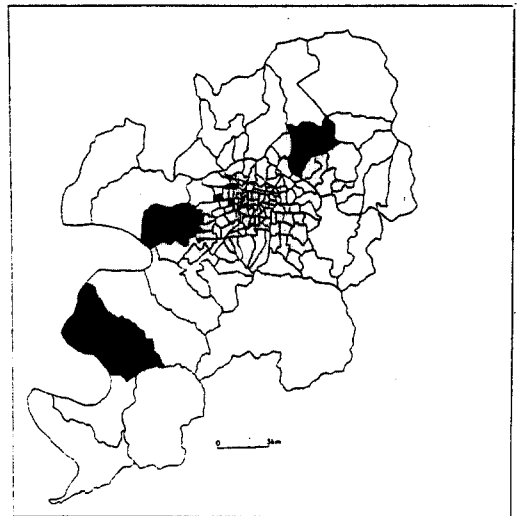


그림 10. 보육시설 적지 (그림9) 지역에서 보육시설이 1~2개인 동

산 1, 7, 논공동의 탁아시설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이들 동은 아동수와 비율, 여자수와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탁아시설은 7개 미만 지역이다. 특히 비산 1동, 논공면은 탁아시설이 1-2개 지역이다(그림 10).

설립주체별로는 공립시설의 아동비율은 줄어 들고 있어 94년말의 12.12%에서 9.7%로 낮아졌고 법인시설은 46.2%에서 41.9%로 낮아진 반면 개인 시설은 12.2%에서 35.7%로 무려 3배나 증가했으며 놀이방은 12%에서 12.36%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재도 법인시설의 아동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 시설과 놀이방으로 우리나라의 탁아시설은 주로 민간시설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설의 규모를 보면 공립시설이 1개소당 평균 68명의 아동을 보육하며 법인이 97명을 보육하여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개인보육 시설은 28명, 직장이 18명, 놀이방이 평균 11명으로 그 규모는 공립이나 법인시설의 1/3-1/10밖에 되지않는 소규모인 것이 특색이다.⁴⁾

5. 결 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가정의 핵가족화로 자녀의 양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보육시설의 현황과 GIS에 의한 적지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보육시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대구에는 광역화 이후 총473개소의 탁아시설이 있으나 동별분포에서 10%미만이 7개소이상의 탁아시설이 있을 뿐 90%이상은 7개미만으로 절대적으로 탁아시설이 부족하다. 탁아시설이 없는 동도 29개 동 18.6%나 된다.

둘째 적지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나 공단지역인 서구와 북구 및 최근에 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지역의 탁아시설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임 여성의 비율도 높고 수도 많고 아동의 비율도 높고 수도 많은 지역이면서 탁아시설이 1-2개소밖에 없는 비산1

동, 논공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셋째 규모가 작고 영세한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보육비의 부담과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넷째 직장의 탁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직장을 가진 여성은 직장에 가기전에 식사준비와 아울러 아이를 어디에든 맡기는 등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므로 여성의 보육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보육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가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해야한다. 육체적, 정신적부담 뿐 아니라 여성이 노력한 결과로 받은 급여의 상당부분을 보육을 위해 소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양질의 보육혜택은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남성들과 보육문제라도 마음놓고 해결되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도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부, 경증장애인, 고령자등 잠재활용인력(약 290만으로 추정)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전국 주요도시 및 공업단지에 7,420개의 보육시설을 추가설치하여 특히 여성인력의 취업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했다.(95, 7, 12명남일보) 그러므로 대구광역시에도 서북구 공단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달성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육비의 부담이 적은 국공립 및 법인 탁아시설을 많이 건립하도록해야 한다고 본다.

註

- 1) 88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클리블랜드 지점의 보고서, 기혼여성의 60% 취업.
- 2)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 취업빈곤과 남녀간 임금격차등의 원인도 있다.
- 3) 최영옥외, 1993, 사회복지시설론, 법문사, 서울, pp. 44-45.
- 4) 민간 시설에의 정부 지원을 더 늘려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과 양질의 교사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구청의 가정복지과 담당공무

GIS기법을 활용한 대구 보육시설 적지에 관한 연구

원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자격을 받은 나이 어린 무경험자는 보육시설허가만 받아가지고 몇 개월 운영해보다가 되지 않으면 무자격자인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인수한 다음의 경영자는 아동에게 질 좋은 교육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채산성만 따지다 보니 보육이 아닌 수용시설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文 獻

- 현외성 외, 1994,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서울.
- 최영욱 외, 1993, **사회복지시설론**, 범문사, 서울.
- 보건사회부, 1993, **보건사회백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특수교육협회, 1993, **전국특수교육요람**.
- 대한특수교육학회, 1994, **특수교육학회지**, 특수교육 100주년 기념특집, 제15집 제1호.
- Andrews, F. M. and Inglehart, R. F., 1977,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in nine western socie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 pp.73-90.
- Fried, M. and Gleicher, P., 1982, Some source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n urban slum, **A. I. P. Journal**.
- Pacione, M., 1982, The use of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life quality in hum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6, pp. 495-514.
- Smith, D. M., 1972,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 Some reflections on social change in Europe, **Geogr. Res. Forum**, 12, pp. 1-15.
- Smith, 1977, **Human Geography : A Welfare Approach**, St. Martin's Press, New York.

A Study on Suitable Site for Day Nursery in Tae-gu

Bae, Sook-Hee*

Summary

As the propor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s rising, the increase of husband and wife both working and nuclear families makes children up-bringing a social problem. But many families have difficulties by the shortage of day nurseries which can solve it. As we can see in the research, the most urgent problem is the extension of nurseries in quantity. In Taegu, since it became a wide-area city, there are 473 nurseries. But in the respect of distribution, only less than 10% of Dongs have more than 7 nurseries and more than 90% of Dongs have less than 7 nurseries. Consequently nurseries are extremely insufficient. Moreover 29 Dongs don't have any nurseries at all and they take 18.6% of Dongs.

The second problem is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nurseries. West and north ward which are industrial complex and swarmed with low-income families, and Tal-sung county which is recently included in the wide-area city keenly need the establishment of nurseries. Besides, Bi-san 1 Dong and Non-gong which have only 1~2 nurseries though they have high proportion of children and women who can be pregnant are also the areas which take precedence of nursery establishment.

The third problem is that government support must be increased in the areas which have many small, petty and profit-making private nurseries so that good quality teachers can make breeding activities in nice facilities and environment.

In materials which are obtained by the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family welfare in some ward offices, Young and unexperienced persons who aquired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ake day-nursery permits and run nurseries only a few months, and if the profits are insufficient, they sell the nurseries for premiums to third persons who are not qualified.

Then the third managers only think of profits without thought of good quality childcare. As the result, the nurseries become asylums not nurseries. That is why the conditions of nursery establishment must be restricted to suitable scale and experienced persons.

The fourth problem is that the nurseries in work places are extremely insufficient. The women who have jobs have many things to do before they go to work such as preparing meals and leaving children in the care of someone.

Hence the childcare problem of working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men must be solved. In nuclear families, childcare is the most serious problem for working women.

The fifth one is the reduction of childcare expenses. Women must sacrifice themselves a lot to make social activities. To say nothing of physical and mental burden, they have to spend much of their salaries on childcare. And yet they don't take the benefit of good quality childcare. For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society must support the childcare

problem to have then be devoted to their jobs without worries about their children.

Therefore Taegu wide-area city must select west, north ward which are industrial complex and the low-income swarmed area before everything and establish many national, public and corporate nurseries which cost less expenses.

Key words: children up-bringing, nursery, Women who can be pregna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ildcare.